

장규직 과장의 복귀를 기다리며

글. 후버 인터넷 물류논객

얼마 전 종영된 KBS 월화 드라마 '직장의 신'을 기억하는가.

주인공인 김혜수, 오지호, 이희준, 정유미의 나무랄 데 없는 연기, 김혜수의 다양한 연기변신, 독특한 구성, 특히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호소감 짙은 메시지까지, 방송 초기 잠시있었던 일본 원작과의 비교는 온데간데없는 '웰 메이드' 드라마였다.

한국 굴지의 식품기업 와이장. 그 속에서도 탁월한 영업력과 기획력으로 초고속 승진과 각종 수상을 거듭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까지 회사 지원으로 다녀온 마케팅영업부 팀장 장규직(오지호 분). 이름에서 보듯이 그는 이 드라마에서 정규직 근무자를 대변한다. 비록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회사에 몸담은 사람은 누구든 그 회사에 충성을 바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떨어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것은 당연하며, 그러기 위해 야근, 접대, 뒷사람 기본 맞춰주기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그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정규직 팀장하고 맞붙어봤자 회사 안에서는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3개월 계약직 여직원 미스김(김혜수 분). 원래 대형은행 정규직 직원 김점순이었으나 존경하고 따르던 계약직 여직원 진미자 계장(이덕희 분, 극중에서 장규직 팀장의 친모)과 비정규직 철폐 시위에 가담했다가 진미자 계장이 시위 현장의 원인을 화재로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본다. 급기야 정리해고당한 김점순은 마음



“올 상반기 최고 히트작이었던 드라마 '직장의 신'에서 주인공 장규직(오지호 분)의 마지막이 물류센터에서 끝난다는 것은 이래저래 의미가 깊다. 물류센터는 일반적으로 기업체 내에서는 생산 현장과 더불어 가장 비정규직 근무자가 흔한 곳이다. 정규직의 정점에 올라 있던 장규직이 그러한 현장으로 갔다는 것은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비정규직에게 야박한 사회 풍토를 더욱 더 강력하게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독하게 먹고 여러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어느 회사에서건 최고의 능력을 발휘. 모든 회사가 꼭 모시고 싶은 계약직 직원이 된다.

드라마는 시간이 갈수록 노예근성을 더해가는 정규직의 모습을 장규직을 통해 보여주고, 비록 신분은 불안정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멋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는 비정규직의 모습을 미스김을 통해 보여주려 애쓴다.

그러던 중 장규직은 입사동기 팀장의 한 계약직 팀원의 아이디어를 사장님 앞에서 대신 발표할 기회를 잡았다가 이견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리고, 회사 경영진의 미움을 산 장규직은 강원도 원주의 물류센터로 발령을 받는다.

물류센터 발령소식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걱정과 걱정을 거듭한다. 걱정의 수준이 흡사 자식을 군대 보내는 어머니 수준으로 묘사됐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뒤로 하고 물류센터로 출근한 장규직. 그를 기다리는 것은 거칠기 짝이 없고, 속칭 '떡물' 들 말은 잘 안 듣는 배송차량 기사들과 물류센터 현장 근무자들이었다.